

물이 있는 달



박은경
한국물포럼 총재
ek_pj@yahoo.com

한국인이란 누구나 둥그런 보름달 속에 그려진 옥토끼와 계수나무를 쳐다보며 상상의 날개를 퍼던 어린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신이 자신의 남편 예(羿)에게 내린 불사약을 훔쳐 먹었다가 발각되어 달로 도망간 '항아' 여신의 신화에 따라, 중추절에 월병을 먹으며 달 속에 살고 있는 항아를 기억한다. 이렇게 옥토끼, 계수나무, 항아를 비롯한 생명체들이 신화 속에서만 살고 있지 않고, 실제로 생명체의 존재가 달에 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크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9일 미국 우주 항공국은 달에서 물을 발견하였다.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딛었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 당시, 우주인들이 가져온 암석을 분석하여 결론지었던, 달은 '메마르고 황폐한' 위성이라는 확신이 올해, 2009년, 40년 만에 무너져 버렸다. 6월 18일 발사된 우주선이 113일간 900만 km를 항해하여 달의 남극지역 케비우스 분화구에 충돌하여 폐기되면서 지구에 보낸 정보로 분화구에 얼음형태로 존재하는 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90년대부터 극 지역에 집중된 수소의 분포로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물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직경 20-30m의 케비우스 분화구는 남극지역에 위치하여서, 자전축이 기울은 달의 상태로 보아 햇빛이 전혀 비치지 못하는 영하 230도의 지역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 참가 연구자들은 이번에 발견한 얼음 층은 2-10㎝나 앞으로 더 많은 양의 물을 발견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이 발견은 지구인들의 달에 관한 이해에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역사 46억년 중 35억년 전에 물이 생겼고, 최초의 생물체가 30억년 전에 생겼다는 지구역사의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달에 물이 언제

생겼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 시작된 지구의 역사를 유추해 볼 때 물이 존재한다는 달의 소식에 어쩐지 달이 새롭게 친근하게 다가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물과 인간사회의 시작도 밀접하다. 아마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사상을 적은 가장 오래된 기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에 서술된 지구와 인간의 창조과정에서 물이 우선되고 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하늘)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분리하여 바다와 대기 속의 수분(수증기, 구름 등)으로 물을 분리하였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분리하여서 물이 땅보다 먼저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에덴동산에 강의 발원지가 있었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등 4개 지류로 흘렀다. 이렇게 강이 흐르는 지역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였다. 이는 자연 생태계를 담은 삶의 터전에 물이 인간 및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암시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문명 발상과 다양한 문화의 양상에도 물은 인간살이의 기본요소로 등장한다. 인류학에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는 480만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 물 근처에 라오톨리 발자국(Laotoli footprints)를 남김으로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에 적응한 인류의 조상들이 점차 전 지구로 이동해 나간 직립원인(Homo Erectus)들 중 아시아지역에는 100만년 전의 자바 솔로강변의 자바인과 60만년 전의 황하지역의 북경인들이 있다. 그리고 지구 곳곳의 고대문명을 비롯한 다양한 문명과 문화들이 물과 연계된 삶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는 인간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물의 중요성은 부각되어져 왔다. 전 세계가 경제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산업화의 한 자락이었던 1972년 무계획적인 기술혁신이 빚어낸 인간환경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UNCHE)>, 그 20년 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992년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다시 10년 후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엔환경관련회의의 과정에서 물이 돋보인다. 특히 1992년 리우회의에서 물에 관련된 전지구적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4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996년 6월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부를 둔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설립되었다. 그 다음해부터 열린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물의 날인 3월 22일경 제1회 모로코의 마라케시, 2회, 네델란드 헤이그, 3회 일본 교토, 4회 멕시코, 5회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6회는 2012년 물위원회 본부가 있는 마르세유에서 열릴 예정이고, 한국은 제 7회 2015년의 세계물포럼을 유치하기를 희망한다.



세계물포럼은 횡수가 거듭되면서 그 조직력과 주제 및 참여자수가 증대되고 있다 이스탄불 제 5차 물포럼에 “물의 분열잇기”라는 제목아래 모인 25,000여명은 정부 수반, 장관, 지방정부, 국회를 비롯한 정부당사자들은 물론 각 종 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어린이, 여성, 국제기구등이다. 지난 10월 14-16일에 열린 세계물위원회 총회 준비과정에서 필자를 놀라게 한 사실은 물위원회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제 1 분과는 국제기구인데 유엔에서 환경을 다루는 UNEP(유엔환경계획)이 이사단체 선출에서 낙마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계물위원회가 실로 이해당사자들의 연대 및 파트너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위원회에는 국제기구외에, 정부기구, 기업체, 시민단체, 학회등 5개의 부서(college)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정부기구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또 때로는 평가하면서 한 사회를 꾸려 가지만, 요사이 전 지구적 움직임을 보면 정부 이외의 기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제시한 <의제 21>, 3장의 주요집단의 역할 강화에서 13-32절까지, 여성,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기업과 산업, 과학과 기술, 농부등 9개 집단이 등장한다. UN은 사회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킨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정책의사결정과정과 정책의 이행과정에 참여시키라는 권고한다.



이해당사자중 가장 약한 집단중 하나가 청소년과 어린이 집단이다. 이들은 성인 이해당사자들이 배려해 주어야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이다. 2002년 WSSD 준비과정에서 남미출신의 한 10대 소녀가 단상에 올라가서 청소년을 국가 대표단에 포함하지 않는 국가는 유엔지속가능발전 관련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생명의 기본이 되고, 사회 안전과 안보의 요소로 부각되는 물에 관한 한, 절대 미래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국제회의의 때 마다 만나게 된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세계물포럼에서 “세대 간의 물 분열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 어린이들은 진지하였고, 절실하기까지 한 모습이였다.

캐나다정부는 일찌감치 극지대의 물을 100년간 건드리지 못하게 규정한 법령을 만들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다. 6명중 1명은 먹을 물이 없고, 2.5명중 1명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위생시설을 갖출 물도 없는 전 지구적 현실속에서 매일 밤 하늘위에 떠 있는 달에서 발견한 얼음물이 지구의 미래 세대들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 허망한 꿈일까? 아마도 진정한 파트너쉽을 발휘한 지구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가능해 지는 꿈이 아닐까? 💧